

包容의 힘과 教育적 가치



2020. 6. 30.
SK mySUNI 정현천

丁鉉千

SK mySUNI SV College
리더 (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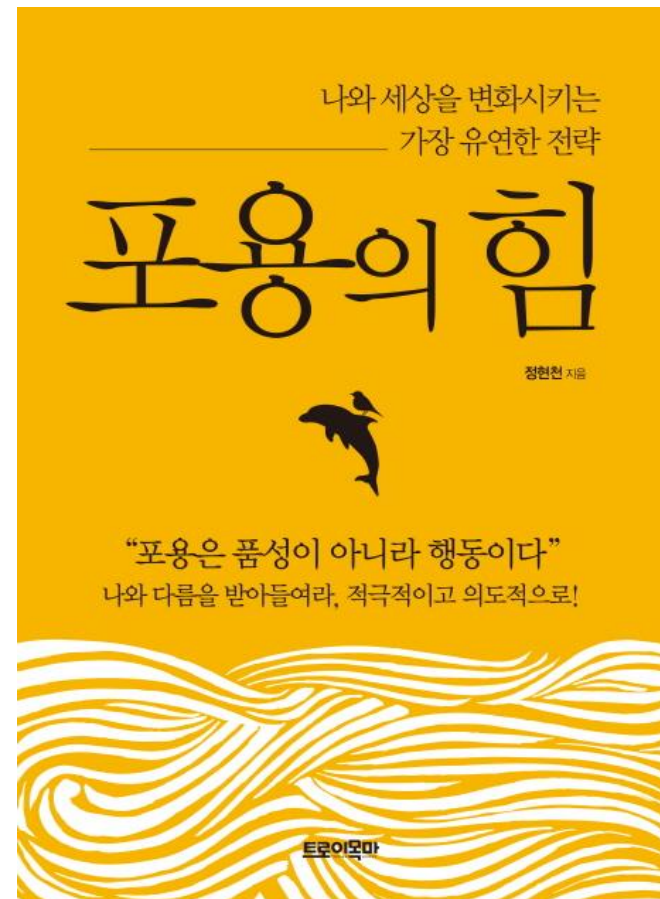
1986 (주)유공 입사

회계/국제금융/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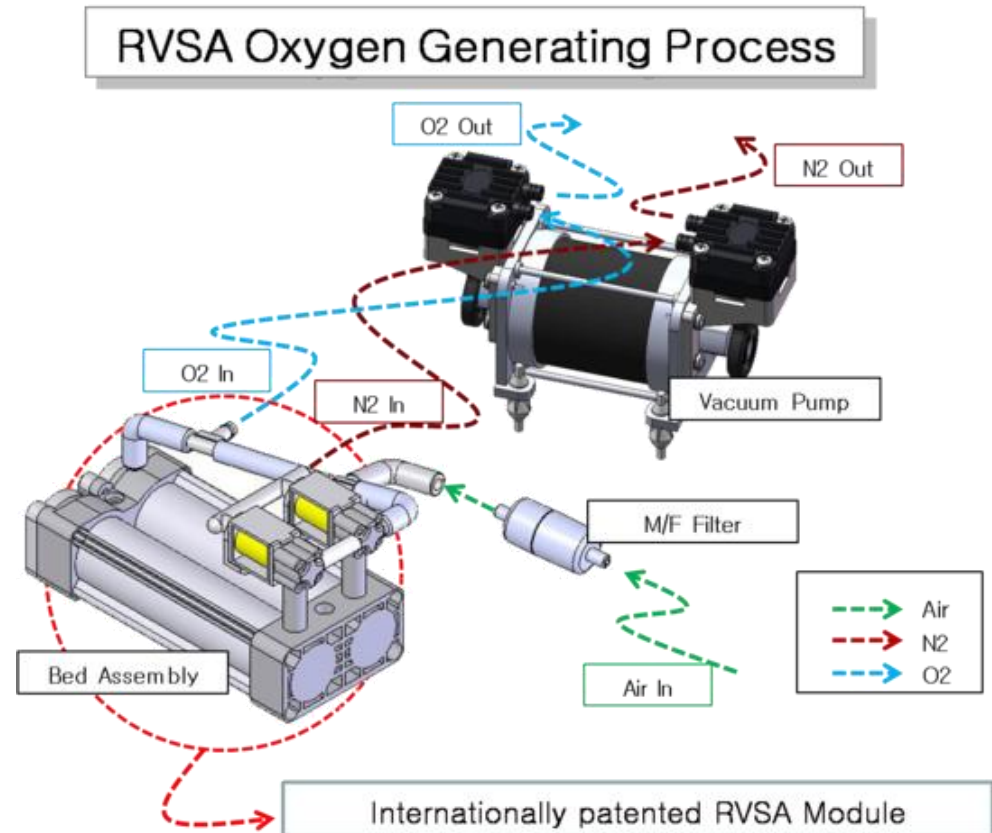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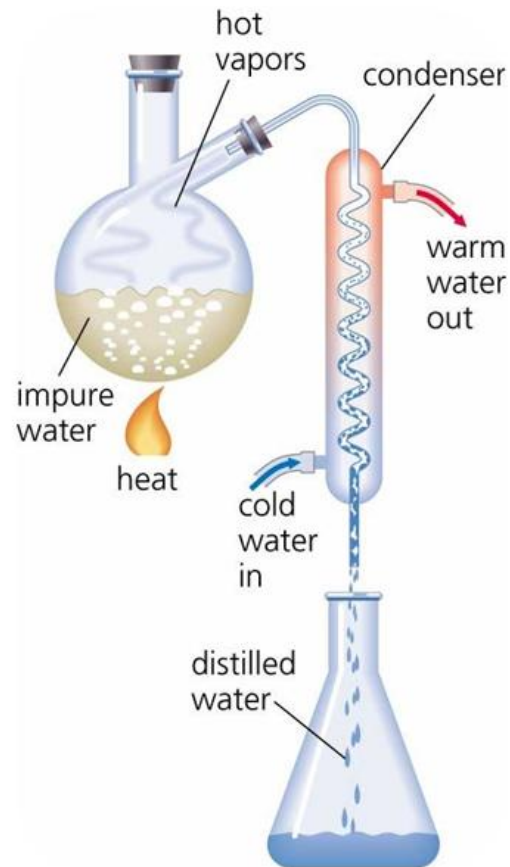
SCM/구조조정

해외사업/신규사업

사회공헌/사회적 가치



모든 순수는 독이다



» Click to enlarge image



Cindy White of Hampshire shows her 6-year-old cat Sunny. White says Sunny's Yoda-like appearance is a result of excessive inbreeding.

(Gus Stuertze/For The Courier News)

More often
find the
poor
after
the
C
"s
the
we
mot
Cindy
health
live. Despi
tabby home a
without an undercoat
its face, and only three teeth, the cat has
thrived in White's care. Because of its



► Play

Holiday Shopping to
Increase Only
Modestly

► Play

Blaine Disappears at
End of Stunt

► Play

STORIES ::

A casts eyes west: Next
stop Huntley?

BUSINESS

DNA chief waits tables -- but

suburbanchicagonews.com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 (William Hamilton 1936-2000, 최재천 교수 강연 중)





Ant mill (400M의 원)

**Observed by William Beebe
in 1921**

**남미 기아나 정글에서
길을 잃은 병정개미**

“앞에 가는 개미를 따르라”



아무도 먹지 않는 바나나 → 화가 난
원숭이 ?



게리 하멜과 C. K. 프라할라드의 실험

러시아 왕궁의 보조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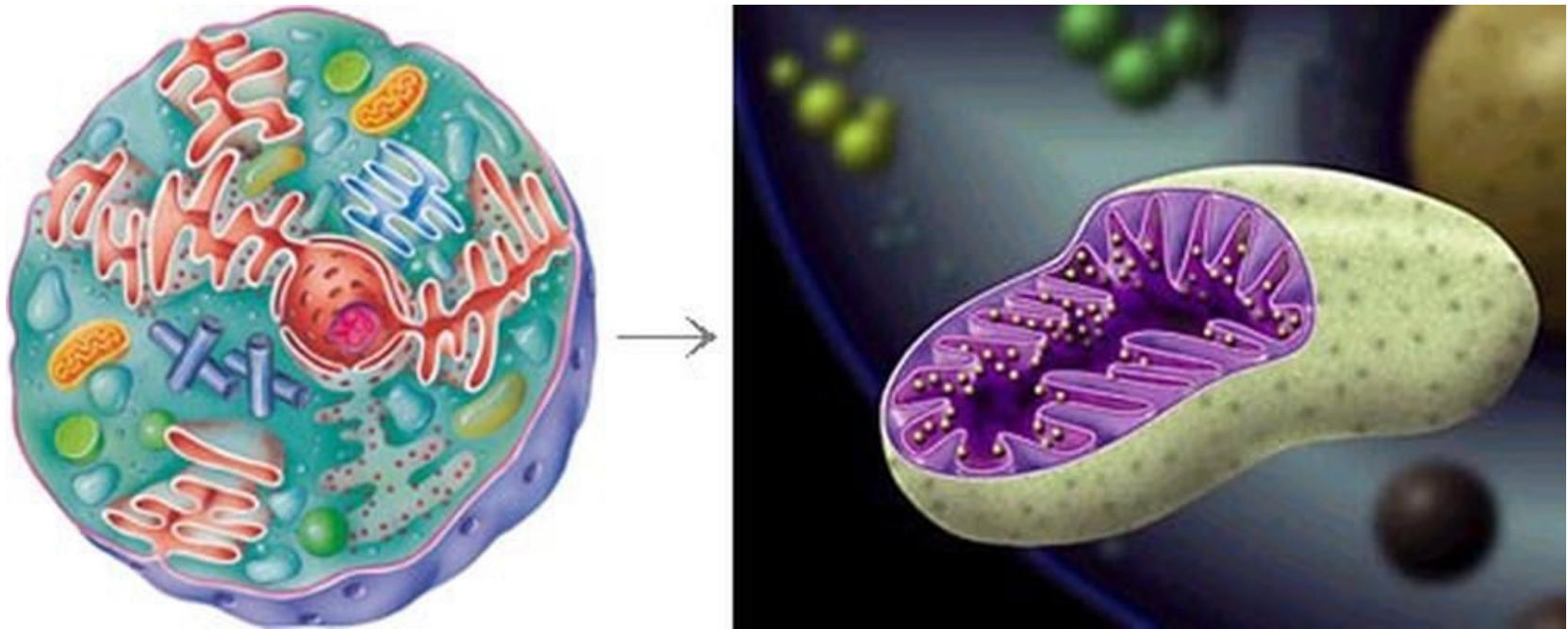
무엇이 있길래?



1950년대 대한민국 제일의 수출기업과 19C 뉴잉글랜드의 얼음회사
두 회사의 공통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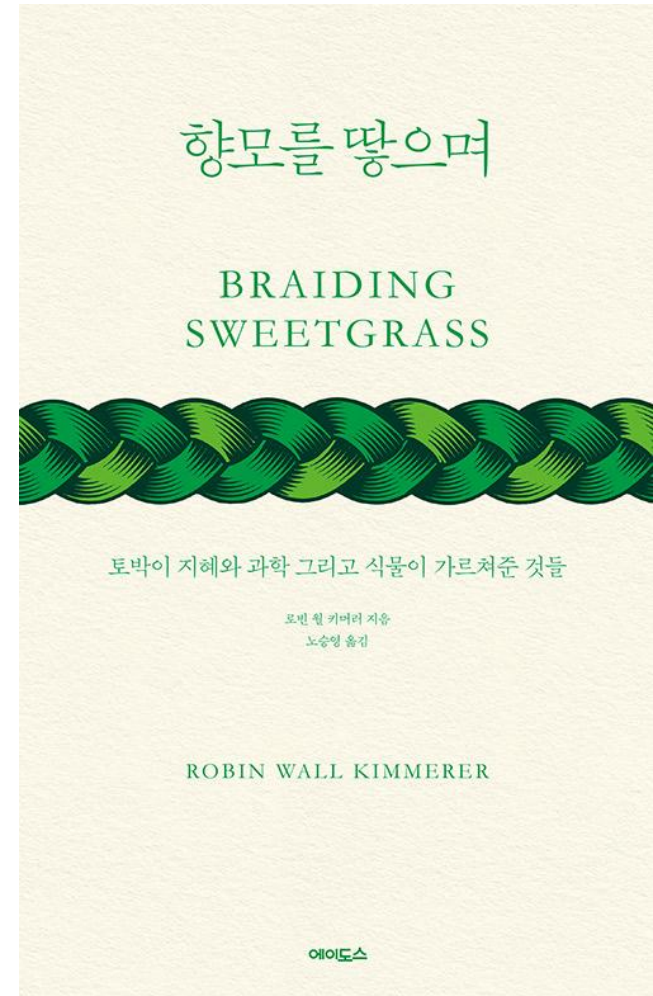


미토콘드리아



생명의 역사는 배척과 경쟁의 역사라기 보다는 협력과 공생의 역사다.
by Lynn Margulis <생명이란 무엇인가?>

지의류



by Robin Wall Kimmer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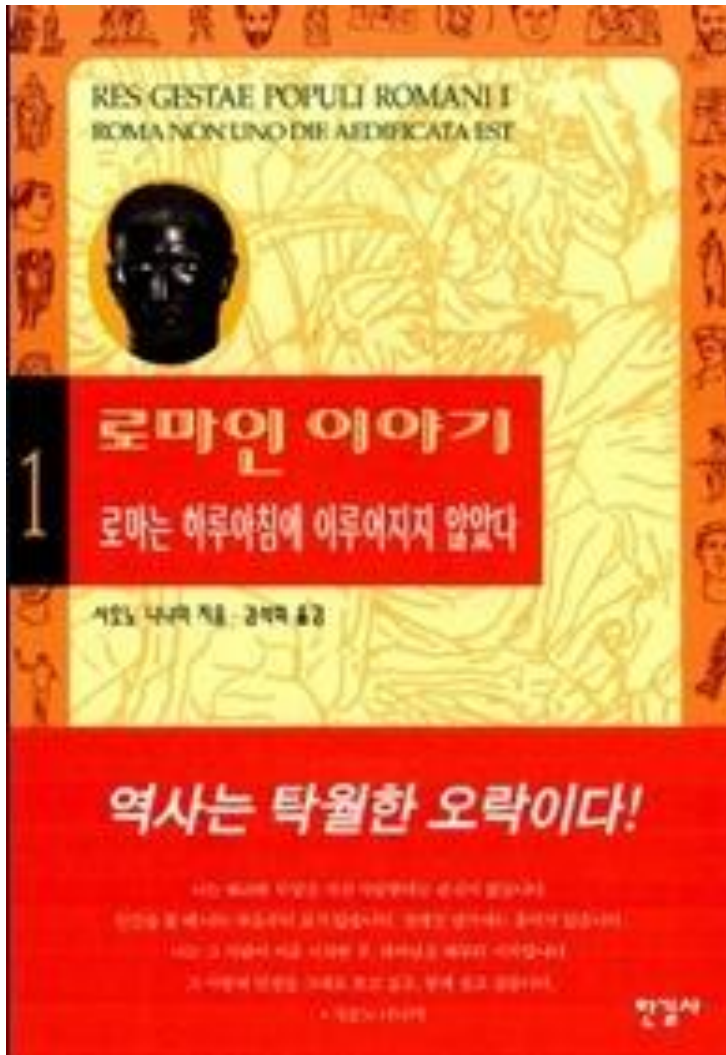
신입사원 뽑기 (Diversity Trumps Ability)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Total
A	O	O			O	O	O		O	O	7
B	O	O				O	O		O	O	6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Total
A	O	O			O	O	O		O	O	7
C			O	O	O			O	O		5

👉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구성된 동질적 집단보다 다양하게 구성된 집단이 더 낫다.
 - Scott E. Page <The Difference>

➤ 로마인 이야기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로마인이라고, 로마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만이 그토록 번영할 수 있었을까요?”

2013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 미술상 수상!
1 2 개 부 문 최 다 노 미 네 이 선



➤ Team of Rivals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통령,
그가 구성한 내각의 면면



집단사고 (Groupthink)



→ 구성원들이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왜곡된 사고방식

“응집력이 강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어떤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때 만장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사고의 경향” 때문

- 예일대의 심리학자 Irving Janis의 분석 -

케네디의 쿠바 공습작전 실패

지나치게 경직된 상하관계



“완곡어법의 문제”

“비행기 추락에 담긴 문화적 비밀”

위험 상황을 부기장이 기장에게 네 번이나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은 이를 묵살

→ 명확하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모호하고 완곡하게 표현해서 기장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했던 것

- Malcom Gladwell 著 “Outlier” 中 -

전문가 집단의 높은 장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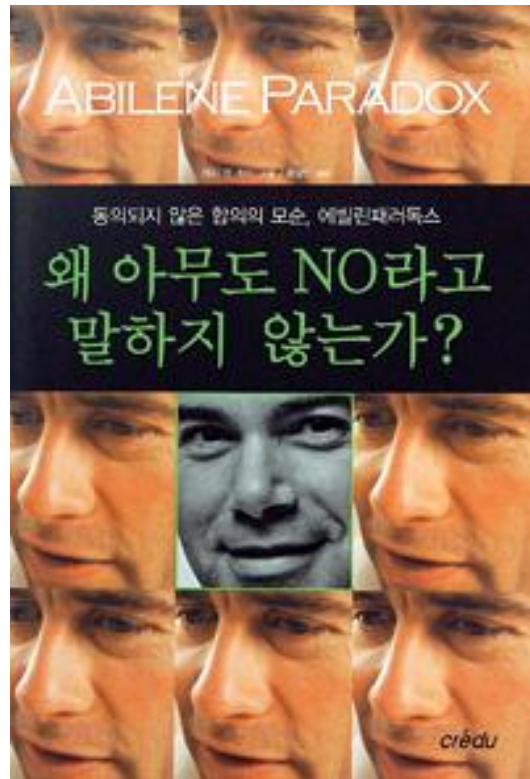


Florence Nighting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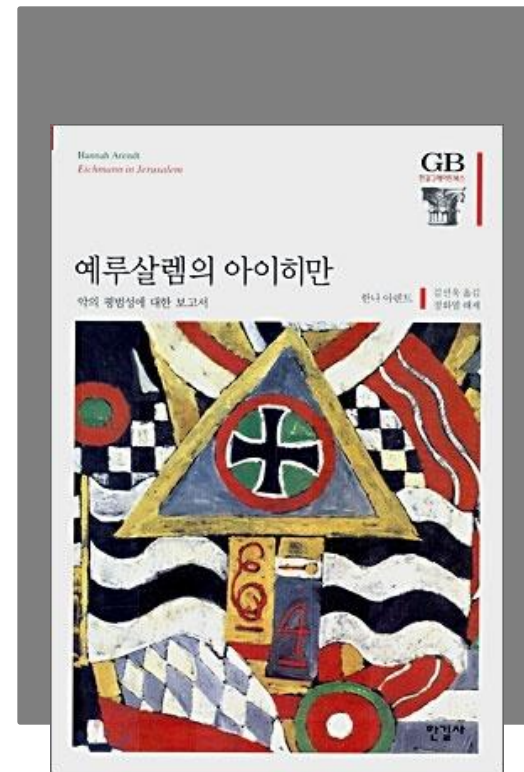
크림전쟁 당시 수많은 군의관과
의무병은 병균의 존재와 위생의
중요성을 과연 몰랐을까?

(노출 불안)

에빌린 패러독스 (Abilene Paradox)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 비판적 사고의 결여, 논쟁의 결여가 아무도 원치 않는 장거리 여행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결과에서부터 2차대전과 같은 비극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Solution to Groupthink: Psychological Safety

“ . . . I take it we are all in complete agreement on the decision here . . . Then I propose we postpone further discussion of this matter until our next meeting to give ourselves time to develop disagreement and perhaps gain some understanding of what the decision is all about.”

Alfred P. Sloan
Former President and Chairman, GM

包

쌀(꾸러미) 포 (사람 인 + 뱀 사)

容

얼굴(담을) 용 (큰집머리 + 골 곡)

- 포용은 동화인가? 분리의 유지인가? 또는 다른 것인가?
- 포용은 목적(정의의 문제)인가, 수단(경쟁력의 문제)인가?
- 포용의 주체는 누구인가?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 포용의 역작용 (갈등)
- 기타
 - 포용의 대상은 특수집단인가? 모든 보편적 개인인가?
(혐오, 소수자 권리)
 - 적극적인 차이의 도입 (Devil's Advocate)이 필요한가?
 - 우리나라의 단일민족 이슈
 - 합리적이고 책임을 지는 토론문화 (Skin in the Game)

왜 가르쳐야 하나?

-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인간 본성에 거스름
 - 포용: 서로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그 자체의 가능성이 발현되도록 기다리고 지원하는 것
- 포용에 반대되는 편견과 혐오/배제는 인간의 뇌를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것
 - 편견: 개별적인 것의 속성을 낱낱이 알기 어려우니까 집단의 속성을 투사하는 것
 - 혐오/배제: 다른 것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거나 알려고 하지 않고 일단 위험하거나 더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공격/회피 반응을 보이는 것
- 도마뱀의 뇌
 - 오랜 교류를 통해 인류의 집단간 편차가 집단내 편차보다 훨씬 작아짐
 - 세상에 이유없이 그 자체로 위험하거나 더러운 것은 없고, 그 인식은 대상이 아니라 나로부터 비롯
 - 인류는 수천 수만년의 축적을 통해 과학적 사실들을 밝혀 집단이성으로 축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뇌는 수만년 전의 덩불 속에서 작동
-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이유
 - 포용은 이성적, 과학적 태도와 궤가 통하는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그냥 갖춰지는 것이 아님
 - 우리 안의 도마뱀의 뇌는 공격/회피하라고 명령하지만, 우리의 이성은 포용하라고 하는 것이니, 쉽지 않음

- 지구환경, 감염병과 같은 공유지에 놓인 사회적 가치에 관한 문제
 - ① Short-term과 Long-term간의 Trade-off가 있고,
 - ② 현재에는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다가 갑자기 발현을 하는 것이며 (nonlinear problem),
 - ③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먼 일처럼 느껴짐
 - 혐오/배제: 별로 위험하지 않은 것을 위험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도마뱀의 뇌가 작용
 - 사회적 가치의 문제: 지평선 저 끝의 회오리바람처럼 위험한 것을 당장의 위험으로 느끼지 않게 만드는 도마뱀의 뇌가 작용

- 스칸디나비아/스위스의 포용지수가 높은 이유 (추정)
 - 지리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포용의 효용을 오랫동안 체감
 - 또는 전 사회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충격 경험 (전쟁, 학살, 피점령 등)

- 우리의 상황에서 포용이 사회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
 -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경험을 치를 여유가 없음
 - 어려서부터 교육하고, 그리고 성인들에게도 끊임없는 환기와 재교육 필요
 - 그냥 놔두면..., 합리적 이유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쓰면서 이유 없이 몰려다니거나 복종을 미덕으로 여기고, 크고 강하고 빠른 것을 무조건 숭상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짐
 - 대신, 호기심을 갖고, 따지고, 밝히고, 토론하고, 작고 약한 것에도 쓸모가 있음을 알아보고, 때로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일은 쉽지 않음 → 교육 필요



- 군것질, 군내, 군눈, 군더더기, 군말, 군불, 군살, 군소리, 군짓, 군침, 군턱...
- 쓸모 없는 것 → (당장 쓸모 없지만) 언젠가 쓸모 있는 것

돌탑 쌓기: 시시덕이는 재를 넘지만 새침데기는 골로 빠진다

